

표류담의 전통과 작품화

윤 일 수

〈목 차〉

- | | |
|---------------|---------------------|
| I. 머릿말 | 2. 소설화 |
| II. 표류담의 유형 | IV. 작품화의 특성 |
| 1. 단순 역경담 | 1. 형식상 — 완성화 추구 |
| 2. 복합 역경담 | 2. 내용상 — 정서와 사건의 부각 |
| III. 기록물의 작품화 | V. 맺음말 |
| 1. 가사화 | *참고문헌 |

I. 머릿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면해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상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기행문학 작품 수만 하더라도 500여편¹⁾에 이른다고 하니, 결코 소홀히 다룰 분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에 못지않게 이에 대한 연구도 만만치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구의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료 소개 및 자료의 세밀한 내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작품화된 자료의 연고 밝히기이다. 전자에는 서인석²⁾, 장덕순³⁾, 정병욱⁴⁾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후자에는 최강현⁵⁾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 최강현 : 1982(A),

2) 서인석 : 1989

3) 장덕순 : 1985

4) 정병욱 : 1988

5) 최강현 : 1982(A), 1982(B)

이처럼 표류담에 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는 해당 작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단순한 기록물인 표류담과 작품화된 표류담을 각각 하나로 독립시켜볼 뿐, 그들을 하나의 선상에 놓고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 방법에서 탈피하여 표류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록물이 작품화를 통해 어떤 형태로 정착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작품화될 때, 장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그 첫 작업으로 역사서 속에 산재해 있는 각 표류담들을 모아, 그들을 유형별로 나누어본다. 그 대상으로는 「동야회집」, 「심전고」, 「왕조실록」, 「연원지지」, 「연행록」, 「청구야담」 등의 역사적 문헌과 「금남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 등의 단행본의 실려 있는 김광현, 김비의, 이방익, 장한철, 제주33인, 최부 등의 표류담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 이야기들은 그들의 표류 상황이 표류로서 겪게 되는 역경에 그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눈다. 이 유형의 구분은 단순히 표류담의 유형을 나누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각 표류담이 장차 작품화될 때, 장르 선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 추정을 가사화된 단순 역경담과 소설화된 복합 역경담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방익의 〈표해가(漂海哥)〉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부남성장생표대양(赴南省張生漂大洋)〉과 〈표만리십인전환(漂萬里十全還)〉이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각 기록들이 그들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 특정 장르를 취해 작품화되며, 그들이 작품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표류담을 보자.

II. 표류담의 유형

표류담을 문자로 기록한 표류기는 문자 그대로 대양에서 뜻밖에 풍랑을 만나 정처없이 표류하면서 악전고투한 체험과 이국의 풍속, 제도 등의 견문을 일기체로 쓴 특이한 기행문⁶⁾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국적 정취로 인하여 경이로운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소재상의 특이함으로 인하여 쉽게 독자를 확보⁷⁾할 수 있다.

물론 표류담도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표류기간 동안 표류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대체로 편안히 지내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표류기간동안 만난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며 고생하다가 귀향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표류 이야기는 허구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역사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문헌상에 나타나는 몇몇 이야기들을 표류기간 동안의 생활이 단순한 고난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를 단순 역경담으로, 후자를 복합 역경담으로 명명하여 살펴보자. 그리고 이들 작품이 어떤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특징들이 작품화될 때, 어떤 장르에 합당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 그 첫 단계로 단순 역경담을 보자.

1. 단순 역경담

낯선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 아래 행해지는 것이라

6) 장덕순 : 1985, P. 124

7) 로빈슨 크루스, 걸리버 여행기, 신밋트의 모험, 톰소아의 모험 등의 모험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것은 바로 모험담이 독자 확보가 용이한 소재임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고생이 뒤틀린다. 게다가 표류담은 뜻밖의 재앙을 만나 계획에 없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고생은 이중된다. 이와같이 어려움이 따르는 여행 속에서 여행 자체로서 겪는 어려움 외에 별다른 고난이 없는 것을 단순 역경담이라 본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1) 김비의 표류담⁸⁾ 2) 김광현 표류담⁹⁾ 3) 제주33인표류담¹⁰⁾ 4) 이방익 표류담¹¹⁾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이야기의 공통된 요소를 추출해 내어, 이들이 실제 작품화될 때의 장르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각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비의 표류담

제주인 김비의 일행은 진상할 감자를 가지고 출범한다. 도중에 강풍을 만나 배는 파손되어 많은 희생자를 낸 뒤, 표류하게 된다. 마침 지나가던 고깃배에 일행은 구조되어 윤이시마(尹伊是摩)라는 섬에 도착한다. 그 섬사람들은 숙식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생활습성과 문화양식을 소개해 준다. 그 곳에서 여러 달을 지낸 후 인접한 여러 섬을 거쳐 유구국(琉球國)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유구국왕의 도움을 받아 일본을 거쳐 귀국한다.

2) 김광현 표류담

탐라인 김광현 일행은 추자도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큰 바람을 만나 위험에 처한다. 표류한 지 아흐레되는 날 남해 보타(普陀) 섬에 닿는다. 그곳에서 며칠 휴식한 뒤, 여러 날 동안의 수로와 육로를 거쳐 중국 황성(皇城)에 도착했다. 표류인들은 표류기간 동안 바다의 절경과 이국 정취의 경이로움을 만끽한다.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편 : 1982, pp.139-152

9) 박사호저, 김중오역 : 1982, pp.184-186

10) 김경선저, 김주희역 : 1982, pp.289-300

11) 박지원 : 1986, pp.391-410

3) 제주 33인 표류담

제주인 33인은 장사하러 육지를 출발했다가 역풍을 만난다. 거센 바람에 밀려 여러 섬들을 지나긴 하나, 가파른 절벽 때문에 배를 댈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며 고생한 일행은 모두 기절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유구국의 이강도(伊江島) 땅이다. 섬 사람의 간호를 받아 기운을 회복하고 보니 배는 이미 파손되었고, 생존자는 26명 뿐이다. 며칠 후 이국사람을 구조하는 기간인 전총역(專總驛)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 여기서 마침 그 나라는 3년에 한 번씩 중국에 조공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사행원을 따르게 되었다. 이들을 따라 주현을 지나며 갖가지 구경을 했다. 이렇게 여러 달이 걸려 중국 황성(皇城)에 도착한다.

4) 이방익 표류담

탐라인 이방익은 관직에 임명되어 부임지로 가기 전 휴가를 얻어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왔다. 가을 벌이 좋아 어선을 빌어타고 뱃놀이를 갔다가 광풍을 만난다. 그렇게 5, 6일간 표류하다가 큰 섬을 발견하나, 바람의 방향이 변하여 그 섬을 지나친다. 그러던 어느 날 배안으로 큰 고기가 뛰어들어 그것으로 일행이 나누어 먹고 생명을 부지한다. 십여일이 지난 후, 어느 섬에 닿는데, 중국 땅이다. 그곳 관리에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한다. 그 곳 관리의 도움을 받아 산천 풍속 등을 구경하며 여러 곳을 거쳐 임진강을 건너 귀국한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표류자 일행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나, 표류 중에 만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귀향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폭풍우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 이외에는 표류지의 이국적 정취를 만끽하며 비교적 안정된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순 역경담은 표류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이로운 경관이나 풍속에 대한 감탄이 기행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것이 문학작품화될 때에는 작가의 정서가 중시되는 서정 문학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다음 장에

서 상세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같은 단순 역경담과는 달리 표류기간 동안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표류담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복합 역경담

앞에서 살펴본 단순 역경담은 표류 중 역경을 겪게 되나 도움자를 만나 그것을 극복하고, 무사히 귀국하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여기서 살펴볼 복합 역경담은 표류 중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표류인들을 약탈하거나 이용하는 악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난관에 부딪힌 표류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며 굶기야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 구사일생으로 귀국한다는 것으로 그 역경담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1) 최부 표류담¹²⁾, 2) 장한철 표류담¹³⁾ 등이 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단순 역경담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의 특성과 그것이 작품화될 때 변이 가능한 장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부 표류담

최부는 제주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중 부친상을 당한다. 날씨가 좋지않음에도 급히 귀향하기 위해 무리하게 배를 탄다. 결국 얼마가지 못해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된다. 해상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 강성 해안에 닿게 된다. 그곳에서 임대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정박하게 되어 기뻐했으나, 그는 밤에 다시 와 약탈해 간다. 그래서 일행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다가 임해현에서 여섯 척의 배를 만나지만, 전날 만났던 강도와 모습이 유사하여 육지로 피신한다. 그곳의 관리에게 숙식을 제공받으며 심문당한다. 여러 관청에서 같은 심문을 되풀이 받는 동안,

12) 최부저, 최기홍역 : 1979

13) 장한철 : 1961, pp.157-174

한 관리가 상을 받을 욕심으로 최부 일행을 왜적이라고 허위 보고했음을 알게 된다. 무고함이 밝혀진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 북경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당조정으로 부터 의복을 하사받고 환국길에 오른다. 환국 도중 조선군 사신을 만나 임금이 자신을 찾기 위해 각 해안과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읍한다. 압록강을 거쳐 한국한다.

2) 장한철 표류담

제주인 장한철은 과거를 보기 위해 여러 일행과 상경한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와 배가 표랑하게 된다. 그는 사기가 저하된 사람들을 격려하여 파손된 배로 고여드는 물을 퍼낸다. 그리하여 조그마한 섬에 도착한다. 그곳에 머물면서 깃발을 만들어 지나가는 배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4,5일째 되는 날 배 한 척이 가까이 온다. 그러나 그들은 해적으로 구조는 커녕 약탈만 해간다. 약탈자를 만날까 봐 두려워진 사람들은 구원을 청하려하지 않는다. 그는 가까스로 선원들을 달래, 산 봉우리에 연기를 피운다. 며칠 후 지나가는 상선에 의해 구조된다. 안남인 임준의 안내로 배안의 진기한 것들을 구경한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뱃사람들은 장한철 일행이 제주인임을 알게 되자, 옛날 탐라왕이 자기 세자를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겠다고 아우성쳐, 댄 배로 갈아탄다. 일행은 다시 폭풍을 만나 많은 희생자를 낸 뒤, 청산도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섬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낸다. 그리고 용왕당(龍王堂) 구경을 갔더니, 한 노파가 먼곳 손님이 오셨다며 술상을 올리는데, 술상을 들고 온 여인이 어디서 본 얼굴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청산도 근해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기절하여 꿈을 꾸었는데, 그때 소복차림으로 음식을 권하던 여인이다.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 마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여인과 운우의 기쁨을 나눈다.

위에서 살펴본 두 편의 이야기는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날씨가 좋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킨다. 그러나 여행자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엉뚱

한 제3의 지점에 도착하여 낯선 인물들에게 약탈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갖은 고생을 겪는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한 뒤에 출항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출발지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복합 역경담을 특이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반전없이 맛있게 흐르는 단순 역경담에 비해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기행문이 가지는 여행지의 경관과 감회가 중심이 되는 일반적인 기행문의 형식에서 벗어나 그들이 겪은 사건 위주로 기행문이 짜여진다. 이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표류지의 경관이나 풍속보다는 그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과 고난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건 중심으로 짜여진 이야기는 문학 작품화될 때 서사 문학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유형의 표류담은 같은 표류담이라 하더라도 각 유형이 중시하는 것이 다르므로, 그 성격 또한 판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형태의 표류담이 실제 작품화 되었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기록물의 작품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매순간 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이처럼 갖가지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특정한 이야기거리 하나를 취하여 이것을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작품에 필요한 소재 선택에서 부터 장르, 사건 구성, 인물 구성, 주제 등 많은 분야에서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역사 속에 산재해 있던 표류담들의 작품화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작품의 성격은 작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이 작가의 선택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기 까지 작가가 겪는 산고를 감안한다면, 무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고찰은 여러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시사를 위한 기록물이 단순한 시사성을 넘어 문학성을 띄고 작품화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류담은 표류 기간 중의 생활이 대체로 단순히 표류로서 겪는 고난에 그쳤으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구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격에 따라 각 유형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작품화될 때, 장르 선정에도 깊은 영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각 유형의 표류담이 작품화된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각 장르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단순 역경담, 복합 역경담이라는 두 유형의 표류담이 서정, 서사 문학화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먼저 서정문학 중 가사 형식으로 작품화된 이방익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1. 가사화

이방익의 표류담은 현재 두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¹⁴⁾이고, 다른 하나는 <표해가(漂海歌)>¹⁵⁾이다. 여기서는 작품 창작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가 씌여진 경위를 살펴보자. 정조 20년 충장장직에 몸담고 있던 이방익이 뱃놀이 도중 풍랑을 만나 떠돌다가, 중국 남단에 표착한 지 9개월 만에 귀국한다.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이방익을 불러 면담한다. 그것을 사관에게 기록하도록 하나, 그 글이 시원찮았다. 그러자 그때 마침 서울에 다니러 온 연암 박지원에게 명하여 <서이방익사>를 지어 바치게 한다. 연암은 그의 뛰어난 한문 실력과 박식한 지식을 발휘하여 200자 원고지 35매 분량의 글을 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3자에 의한 표류자 진술의 기록에 불과할 뿐이므로, 표류 사실에 대한 감회가 가미되지 않고 있다.

14) 박지원: 1986, pp.391-410

15) 이방익: 1914, pp.144-152

그런데 후자는 이와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표해가>는 1914년 <청춘>에 ‘벚꽃 새미’ 이란 부제와 함께 소개된다. 이 작품의 확실한 창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표류해 돌아와 국왕을 알현한 후인 1797년 경에 표류자인 이방익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가사의 양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작가 능력, 작품 성격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선행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이 작가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을 지낸 집안이며, 자신도 무관이었기에 글 솜씨는 뛰어나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¹⁶⁾ 이것은 사관이나 연암의 대필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미미한 한문 실력은 자신이 겪은 표류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형식면에서 자유롭고 표현하기에도 용이한 우리말을 이용한 가사 형식이 작가에게 적합하지 않았나 한다.

다음 후행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표해가>는 전체 604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약 80%에 해당하는 502구가 표류지의 경관과 풍속 소개와 그것에 대한 작가의 감회가 곁들여 있다. 이처럼 풍속과 경관에 대한 작가의 감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작가가 그만큼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작가가 이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이러한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서정 문학의 양식을 빌어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가 능력의 한계, 작가 감정의 축적 등과 같은 이유에서 이방익 표류담은 <표해가>란 가사로 작품화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학 표현 양식 중에서, 가사라는 양식을 취하여 자신의 표류담을 문학화시킴에 있어서, 그 창작이 있기까지의 여러 주변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방익 표류담과 달리 소설의 형식을 빌어 작품화된 장한철 표류담에 대해 알아보자.

16) 박지원 : 1986, p.392

上日李邦翼事甚焉奇惜無好文字爾宜選進一編臣趾源承命震越退取其事略加證正焉

2. 소설화

장한철 표류담도 이방익 표류담과 같이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형식을 빌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일기체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체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을 살펴보자. 영조 46년(1770) 제주인 장한철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하다가 표류당한다.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곧장 서울로 올라간다¹⁷⁾. 그러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시 귀향한다. 그리고 조난 때, 물에 젖어 형태를 알 수 없게 된 초안의 기억을 더듬어¹⁸⁾〈표해록〉¹⁹⁾을 작성한다.

다음은 후행하는 것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부남성장생표대양(赴南省張生漂大洋)〉²⁰⁾과 〈표만리십인전환(漂萬里十人全還)〉²¹⁾이 있다. 전자는 한문본과 한글본이 있는데, 각각 200자 원고지 25매 내지 30매 분량이며, 후자는 한문본으로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이다. 두 작품은 한글과 한자라는 문자상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거의 비슷한 분량에 해당한다. 내용면에서도 거의 같으나, 전자에는 장생이 환국한 후 조씨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후자는 조씨녀를 후처로 삼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차이²²⁾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두 작품을 종합하여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장한철 표류담이 많은 장르 중에서도 특히 소설화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않

17) 장한철저, 정병욱역 : 1979, p. 120

장한철 : 1961, p.173

十九日 發程上京

18) 장한철저, 정병욱역 : 1961, p.111

장한철 : 1961, p.172

在虎山時 草漂海日錄 歲于此棟出見之 殘缺壤漏 多不可攷 然而意致
而臆潮 則可得其領略 赤幸藥之不涸也

19) 장한철 : 1961, pp.157-174

20) 정명기편 : 1987, pp.396-418

김우성, 임형택저 : 1973, pp.456-461

21) 이원명 : 1958, pp.42-50

22) 「청구야담」의 〈부남성장생표대양〉에서는 伊後幾年張生登科至高城郡守云云
「동야회집」의 〈표만리십인전환〉에서는 妻趙女作妾後幾年張生登科至城郡守

나 한다. 그중 하나는 이야기 자체가 사건 위주로 짜여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방익 표류담과는 달리 표류 기간 동안 작가가 겪은 고난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작가에게 있어서 뜻밖의 재난을 만나 맞은 연속된 역경의 극복담은 이국의 경관이나 풍속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외에 다른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구성은 사건 중심으로 엮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작품화될 때는 서사 문학의 형식을 빌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장한철의 이야기가 소설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꿈 삽화와 결혼 삽화를 들 수 있다. 이 두 삽화는 다른 표류담에서는 나타나지않고 장한철 표류담에서만 보여지는 특이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며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나아가 이것은 허구가 가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허구적 성격이 허구의 조합물인 소설화를 이루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한철 이야기는 사건 중심적인 이야기 전개와 허구적 색채가 짙은 꿈, 결혼 삽화에 의해 서사 문학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이방익, 장한철 두 표류담이 각 이야기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에 따라 각각 서정, 서사 문학이란 다른 장르로 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고찰을 위하여 각 이야기가 작품화됨으로써 나타난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V. 작품화의 특성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보존을 위한 기록물의 형태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씌여졌나에 따라서 그 성격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기록물은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띠게 되고, 문학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물이 작가 창의력의 가미로 문학 작품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형식적인 면을 보자.

1. 형식상 - 완성화의 추구

표류담의 한 형태인 〈서이방익사〉나 〈표해록〉은 실제했던 일이 망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의해 일어난 개개 사건들의 집합체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사건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 한 사건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의해 일어난 개개 사건들의 집합체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사건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 한 사건 덩어리는 아니다. 이것은 두 작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서이방익사〉의 경우를 보자. 작품 구성은 정조 임금의 말씀과 이방익 부자의 표해 기연, 제주의 연혁, 중국 남단과 우리 표해자들의 표착 사례, 이방익의 표해 사실을 임금께 아뢴 내용과 그 내용에 관한 연암의 고증과 견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성을 통해서 재확인 되듯이 〈서이방익사〉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독립된 개개의 이야기가 모여 있는 집합체이다. 따라서 그 전체 이야기는 사건의 시작과 끝이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음 〈표해록〉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표류 사실을 일기의 형식을 빌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기문의 특성과 같이 그날 일어난 일들 중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작품은 한 사건을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다양한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표류 중 일어난 하루 하루의 독립된 이야기가 표류라는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이야기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록물의 형태로 이루어진 <서이방익사>나 <표해록>이 미완성품의 나열인데 비해, 이들이 작품화된 형태인 <표해가>나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표해가>를 보자. 이것은 기사라는 형식을 빌어 작품화되면서 표류 이외의 불필요한 사건은 모두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흐름이 분산되지 않고, 표류 이후 귀향을 향하여 바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을 보자. 이것이 소설이란 장르를 빌어 작품화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등 일련의 소설 구성의 형식에 의존해야 한다. 즉 시작과 맺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단순한 기록물과는 달리 특정한 형식을 빌어 작품화된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한 요건으로 어떤 일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사건을 이끌어 마무리지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기록물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자.

2. 내용상 — 정서와 사건의 부각

이방익과 장한철의 표류담은 문학 작품화되면서 그들이 취한 장르의 특성인 서정성과 서사성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각 이야기가 작품화됨으로써 나타난 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방익의 이야기를 보자. 그 중 <서이방익사>를 보자.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이방익사>의 구성은 정조 임금의 말씀과 이방익부자의 표해 기연, 제주의 연혁, 중국 남단과 우리 표해자들의 표착사레, 이방익의 표해 사실을 임금께 아뢴 내용과 그 내용에 관한 연암의 고증과 견해²³⁾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23) 최강현 : 1982(B), p.260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서이방익사>는 문학 작품이 아닌 단순한 기록물이다. 그러므로 표해 사실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시사성만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작품화한 <표해가>는 다른 양상을 띤다. 먼저 그 구성을 보자.

- ① 출발(22구)-자기 소개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된 경위
- ② 표류(66구)-표류로 인한 기갈(飢渴)과 극심한 풍랑과의 목숨을 건 싸움
- ③ 구조(48구)-표류지민에게 구조
- ④ 관광(454구)-표류지의 경관과 풍속구경
- ⑤ 귀국(20구)-표류 사실에 대한 감회

이상과 같은 점진적인 5단계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표해가>는 문학 작품화된 형태이므로, 표류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 작품 전개에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서이방익사>에 비해 <표해가>가 정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자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정제 과정을 거친 문학 작품이므로,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실례를 보자.

<예문1>

방익이 아뢰어 말하길, 8인과 함께 채색한 배를 타고 5리 남짓 가니, 마궁이문에 이르렀다. 강을 따라 내려가니 채선 수백 척이 있으며, 그 강가에 화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문이다. 문안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세 마디 소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 가니, 8인의 마궁대인이 붉은 두루마를 입고 가래나무에 앉아 있는데, 육십 살은 넘키히 되어 보이고, 아름다운 수염을 가지고 있더라. 계단 아래 붉은 양산을 세우고, 대 위에 모시고 서 있는 사람들이 가히 80명은 되겠더라. 모두 채색된 옷을

입었는데, 어떤 이는 쪽색, 어떤 이는 녹색이었으며, 칼을 차거나 혹은 것을 꿸고 있더라.²⁴⁾

〈예문2〉

방익이 아뢰어 말하길, 큰 두배에 나누어 실고 서남쪽을 향하여 이틀 동안 가서 대만부 북문 밖에 이르렀다. 육지에 내리니 변화하고 화려한 누대가 있고, 밤에 좌우로 유리 등을 단 길이 있어, 그 밝기가 마치 낮과 같더라. 또, 길들인 새가 있어, 그 색이 영롱하고, 때를 맞춰 울더라.²⁵⁾

〈예문3〉

馬官大人무삼일로	우리八人불넛던고
使者서로인도하야	彩船에올니거늘
船行六七里에	衙門에이르렀다.
眼目이眩況하니	畫圖中이아니런가
서너門지나가서	高聲長呼한소래에
나오너니그누군가	前後擁衛況忽하다
身上에紅抱입고	불근日傘압헤섯다
端正하고雄威할사	진실로奇男子라 ²⁶⁾

〈예문4〉

臺灣府가어디매노	五日만에다닷거라
船艙左右에는	丹青한漁艇이요

24) 박지원 : 1986, pp.395-396

邦翼奏曰八人同乘彩船行五里許詣馬宮衙門沿江彩船數百艘江邊畫閣即衙門也門內高唱三聲道入八人馬宮大人紅袍橋坐年可六十餘美髯髯階下建紅傘臺上侍立者可八十入皆紋緞衣或藍或綠佩劍或負羽

25) 박지원 : 1986, pp.396-397

邦翼奏曰以兩大船分載西南向二日到臺灣府北門外下陸繁華壯麗樓臺夾路夜張琉璃燈通明如晝又有異鳥馴之彩龍知更而鳴

26) 이방익 : 1914, p.158

長江上下에는	無數한商船이라
鍾鼓와笙歌소리	곳곳이서밤새오니
四月八日觀燈인들	이것홀길잇슬소나
타던船人離別하고	層城間달려드니
琉璃帳水晶簾이	十里에連하였다 ²⁷⁾

위의 <예문1>, <예문2>는 <서이방익사>이고, <예문3>, <예문4>는 <표해가>인데, <예문1>와 <예문3>, <예문2>와 <예문4>는 <서이방익사>와 <표해가> 두 작품에서 같은 내용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1>, <예문2>와 <예문3>, <예문4>의 비교를 통하여, 단순한 기록물과 가사라는 형식을 빌어 작품화된 것 사이의 차이를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두 작품 사이에는 필자의 차이 즉, 전자는 여행자가 직접 기록하지 않았고, 후자는 여행자가 직접 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가볍게 넘겨버릴 요소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요소도 아니므로, 여기서는 그 차이는 의식하지 않고 작품을 보겠다.

먼저, <예문1>, <예문2>는 단순한 기록물이므로, 표류 중 보고 들은 것을 타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표현 하나 하나가 상당히 사실적이며, 섬세함에 그칠 뿐 표류자의 체험에 대한 감상이 가미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상당히 객관적인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문3>, <예문4>는 서정문학에 속하는 가사의 형식을 빌어 작품화한 것이므로, 작가 정서의 전달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을 기술해나가는 시각 또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작가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 현실들은 주관적 시각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그 작가 개인의 정서와 상상에 따라 작품 구성 요소들에 대한 그 경중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작품은 작가의 감정에 따라 독자에게 감정을 호소하게 된다.

27) 이방익: 1914, p.159

다음은 이방익 표류담과 달리 소설의 형식을 빌어 작품화됨으로써 사건이 부각된 장한철 표류담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는 일기문인 <표해록>과 소설 작품인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이 있다.

먼저 일기문인 <표해록>을 살펴보자. <표해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10매 가량으로 첫 머리에 배를 타고 출범하게 된 이유와 출범 일시가 기록되어 있다. 출범 이후부터 귀향까지는 거의 일괄적으로 기록 날짜와 날씨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일어난 일과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함께 기록자의 감회가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표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모험담과 연애담을 함께 지닌 전형적인 중세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해양 지리지로서의 가치와 설화집²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야기 거리에 그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표해록>을 소설화한 <부남성장생표대양>이나 <표만리십인전환>은 분량이 200자 원고지 20~25매 가량이므로 분량면에서는 <표해록>의 약 2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부남성장생표대양>이나 <표만리십인전환>은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그 양이 엄청나게 축소되었는데, 그 축소는 표류 상황에 대한 묘사와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표류자의 번민, 삽입 설화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표류자의 내적 고민이므로 상황 묘사나 삽입 설화에 관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표류자의 내면 세계에 관한 묘사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해당 예문을 보자.

장사치의, 중리(重利)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있을까. 만리풍도(萬里風濤)에 살아 돌아갈 기약도 없는데 다만 이득을 독차지하는 데만 급급하니, 어찌 이 죽일 놈의 장사치를 택하리오²⁹⁾

28) 장한철저, 정병욱역: 1979, p.12

29) 장한철저, 정병욱역: 1979, p.560

장한철: 1961, p.163

商人之重利 萬里風濤 生還無期 而猶汲之於龍斷綱利 癸擇乎剖身之賈胡

대저 하늘이 내린 생물들은 모두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비록 태호(泰虎)가 모질다 하나 그 가족에서 자면 가히 우리 몸을 온전히 해 주고, 영사(永蛇)가 독(毒)이 있다 하나, 먹이로 쓰면 가히 우리 몸을 낮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오직 저 왜놈이란 종자는 사람에게 터럭만한 이로움도 주지 못하고, 그 해독으로 말하면 태호, 영사보다도 더 심하다. 하늘이 어찌 이런 종자를 만들어 내었을까, 직접 조물주(造物主)를 허물하려 했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³⁰⁾

이상과 같이 <표해록>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표류자의 내적 고민이 <부남성장생표대양>이나 <표만리십인전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삭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품 성격 상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해록>은 필자 자신을 위한 생활의 기록인 일기문이므로 작가의 내적인 심리 상태가 중시된다. 그러므로 표류자인 작가의 내면 세계에 대한 묘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남성장생표대양>이나 <표만리십인전환>은 소설화됨으로 해서 이미 작가 자신의 세계에서 떠나 제3자의 세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독자를 위해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를 전개시켜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엮어갈 수 있는 사건들만이 채택되고, 불필요한 묘사들은 삭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확인된 이방익, 장한철 두 표류담은 각 이야기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에 따라 각각 서정, 서사 문학이란 다른 장르로 변이는, 그들의 작품화를 통하여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장한철저, 정병욱역 : 1979, p.61

장한철 : 1961, p.164

夫天之生物也 俱有益於人 誰以泰虎地望焉 而寢基皮則可以全吾軀 永蛇之毒焉 而用爲餌 則可以吾痼

IV. 맺음말

표류담은 일반인들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세계에 대한 방문록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범위를 벗어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제3자를 위하여 기록되지 않고 있다. 다만 표류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하여, 일기의 형식을 빌어 남겨 놓은 기록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 중 〈표해가〉와 〈부남성장생표대양〉이나 〈표만리십인전환〉 등은 단순한 기록물의 단계에서 벗어나, 문학이라는 형식을 빌어 작품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기록물이 작품화될 때, 어떤 형태로 변화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창작에 있어서 장르 선택은 작가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것 만이 아니라, 소재의 성격에 따라 그 작품이 어떤 장르에 적당할 것이라는 장르 결정 요인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 확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서 속에 산재해 있는 표류담 몇몇 개를 인위적으로 발췌하여, 그 이야기를 표류 중의 생활이 표류로서 겪게 되는 고난에 그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중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표류 중의 역경이 다소 단순했기에 표류자가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경이로운 눈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기록은 표류지의 경관과 풍속의 소개와 그것에 대한 작가의 감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표류상황뿐만 아니라, 그 생활자체도 생명을 건 고난과의 싸움이었기에, 표류지의 경관 따위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오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자세만이 중시되었다. 그러므로 그 기록은 역경을 극복한 것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이와 같이 같은 표류담이라 하여도 그 유형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고찰에서 발견된 각 유형의 기술상의 특성은 일기체의 기록물이 문학작품으

로 변이될 때, 그 장르와도 관련성이 있었다. 먼저 표류지의 경관과 풍속에 대한 감동을 주로 하는 단순 역경담은 정서적인 면을 중시한 서정문학으로 정착되기 용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류지의 이국적 모습보다는 자신의 고난 극복담이 주를 이루었던 복합 역경담은 사건의 전개를 중시한 서사문학으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작품화되면서 기록물의 상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형식·내용 양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는 불완전하고 산만한 기록물이 작품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치단으면서 이야기가 완결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방익, 장한철 표류담은 각 이야기가 작품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취한 장르의 성격에 따라 작가의 정서와 사건이 더욱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표류담의 성격과 관련된 장르 변이 양상은 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막 공부를 시작한 초년생의 연구라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김경선저, 김주희 역 : 1982, 「제주표인문답기」, 「고전국역총서 연행록선집10, 연원
직지3」, 민족문화추진위원회발행, pp.289-300
- 김우성, 임형택 : 1973, 「표류기」, 「이조한문단편집上」, 서울, 일조각, pp.340-352
- _____ : 1973, 「부남성장생포대양」, 「이조한문단편집上」, 서울, 일조각, pp.456-
461
- 김준오 : 1991, 「한국현대장르비평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사호저, 김종오역 : 1982, 「탐라표해록」, 「고전국역총서, 연행록선집9, 심전고2」,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발행, pp.184-186
- 박지원 : 1986, 「서이방익사」, 「연암집1」, 서울, 계명문화사, pp.391-410

- 서인석 : 1989, 「장한철의 <표해가>와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67. 6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143-160
- 세종대왕기념사업회편 : 1982, 『성종실록14』,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발행, pp.139-152
- 오관석 : 1984, 「한문기행연구-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방익 : 1914, 「표해가」, 「청춘1」, 서울, 경성신문관, pp.156-164
- 이원명 : 1958, 「표만리십인전환」, 「동야회집7」, 대구, 경대사대국어학회연구실발행, pp.42-50
- 장덕순 : 1985, 『한국수필문학사』, 서울, 새문사
- 장한철 : 1961, 「표해록」, 『인문과학6』, 서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57-174
- 장한철저, 정병욱역 : 1979, 「표해록」, 서울, 범우사
- 정명기편 : 1987, 「부남성장생표대양」, 『한국야담자료집성2, 청구야담6』 서울, 계명사, pp.396-418
- 정병욱 : 1988, 「표해가에 대하여」, 『한국고전의 재인식』, 서울, 기린원. pp.232-254.
- _____ : 1961, 「표해록 해제」, 『인문과학6』, 서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75-191
- 최강현 : 1982, (A), 『한국기행문학연구』, 서울, 일지사
- _____ : 1982, (B), 「<표해가>의 지은이를 살핌」, 『어문논집23』 고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67-74
- 최부저, 최기홍역 : 1979, 「표해록」,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